

취업사기에 두번 우는 청년실업자들

“대기업 취업 시켜 주겠다” 인사비 요구 돈 가로채

“정치자금 내면 특별채용 될 수 있다” 속이기도

구직자 절반 가량 “피해 경험”...피해보상은 고작 6%

■ 지난 1월 A씨(여·57)는 “여수의 제일모직이나 GS칼텍스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인사비를 요구한 정모(47)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정씨는 돈만 받아 가로채고는 종적을 감췄다. 취업을 시켜주지도, 돈을 되돌려주지도 않았다. 취업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순천에 부동산 사무실을 내고 “여수산단 대기입 인사부서 간부”로 전한다. 취업시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소문을 퍼뜨린 뒤 최소 3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 김모(74)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보험회사에서 실직한 뒤 1년 넘게 취업을 찾지 못하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B씨(67)에게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A씨의 사돈(58)을 통해 자신을 정대 간부로 소개하며 “중앙당에 정치자금을 내면 포스코나 GS칼텍스에 특별 채용될 수 있다”며 “절대 비가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취업사기꾼 이모(61)씨는 지난 2011

년 3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식당에서 아들 취업을 부탁하는 C씨(57)로부터 3300만원을 건네받고서 종적을 감췄다. 그는 주변에 “광주에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간부와 친하다”고 속인 뒤 구직자 부모를 만나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해당 기업과는 무관하고 간부들과의 인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애·출산·결혼·내집 마련·인간관계 등을 포기(‘5포’ 세대)하고 취업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취업 사기’로 또 한번 상처받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청년 구직자 10명 중 3명만 ‘눈높이에 맞는 직장’에 입사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는 사기꾼의 꾀에 넘어가 돈을 때리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광주·전남 지역 청년 구직자(20~29세) 4970명(광주

2831명·전남 2139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역 실업률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전남 실업자는 4만9000명(광주 2만2000명·전남 2만7000명)으로 2013년 4만1000명보다 무려 8000명이나 늘었다. 2012년 실업자(3만4000명)와 비교하면 2년 새 실업자가 1만5000명이나 급증했다.

취업을 돕는 데에도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다니 더더구나 보다 나은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이 태반이다.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작는데 일하는 시간은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동여건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1만1000곳을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난다. 근로자 평균 월급이 광주 249만3000원 ▲전남 278만원 ▲서울 320만원 ▲울산 295만2000원인 반면, 월 평균 근무시간은 광주 186.5시간 ▲전남 188.7시간 ▲서울 178.9시간 등으로 열악한 지역 노동여건이 드러난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대기업을 비롯,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탓에 구직자나 그 가족들의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구직자 8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47.1%(394명)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 결과(33.2%)보다 무려 13.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기관 신고 등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구직자는 6.1%에 그쳤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입양 딸 성폭행 승려 검찰, 친권상실 청구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0일 딸로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장성 모 사찰 승려 A(62)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찰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B양을 입양해 키우는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3조)은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공립 일반고 성적 왜이러나...상위 30개 고교 중 한곳뿐

〈문정여고〉

작년 수능 국·영·수 성적 분석 상일여고·광주제일고·광주고 자율형 공립고만 ‘선전’

작년 11월에 치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분석 결과, 광주지역 공립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저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상위 30위 중 공립 일반고는 문정여고 한 곳뿐이었다. 그나마 자율형공립고인 상일여고, 광주제일고, 광주고가 이름을 올려 체면치레를 했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출한 ‘2015학년도 수능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영·수·학 표준점수 평균 상위 전국 100개 고교 중 광주지역 일반고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상위 100위권에 포함된 고교는 광주에서 4곳으로, 모두 자공고와 특목고였다. 자사고인 승덕고는 국·영·수·학 표준점수 평균 359.6점을 획득해 전국 46위에 올랐다. 승원고는 350.9점으로 72위, 특목고인 광주과학고는 348.6

점으로 83위, 자사고인 보문고는 344.5점으로 98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광주지역 고교의 100위 진입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수능에서 100위권에 포함된 보문고가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이고, 내년 수능에서는 승덕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수험생들이다.

이들 자사고·특목고를 제외하면 자공고인 상일여고가 337.88점(광주 5위)으로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광여고(337.61점), 고려고(333.37점), 대동고(332.62점), 대성여고(329.51점), 서석고(326.86점)가 광주지역 고교 ‘톱 10’에 들었다.

전남은 전국 100위권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3개교와 자사고, 특목고 각 1개교 등 5개 고교가 이름을 올렸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인 장성고가 349.8점(전국 74위)으로 전남지역 고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이어 자사고인 광양제철고가 349.1점(79위), 특목고인 전남외고가 348.6점(83위),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인 능주고 347.2점(89위), 창평고 344.9점(97위)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전남 지역 고교 2015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상위 20위

순위	학교명	평균 합계
1	승덕고등학교	359.59
2	승원고등학교	350.91
3	광주과학고등학교	348.55
4	보문고등학교	344.46
5	상일여자고등학교	337.88
6	대광여자고등학교	337.61
7	고려고등학교	333.37
8	광주대동고등학교	332.62
9	대성여자고등학교	329.51
10	광주서석고등학교	326.86
11	광덕고등학교	325.46
12	동아여자고등학교	324.04
13	광주인성고등학교	322.81
14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322.60
15	문성고등학교	320.40
16	살레시오고등학교	319.91
17	광주제일고등학교	319.68
18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319.18
19	문정여자고등학교	318.65
20	조대여자고등학교	318.28

순위	학교명	평균 합계
1	장성고등학교	349.77
2	광양제철고등학교	349.10
3	전남외국어고등학교	348.55
4	능주고등학교	347.16
5	창평고등학교	344.91
6	영흥고등학교	331.03
7	해룡고등학교	325.39
8	목포홍일고등학교	324.71
9	남악고등학교	320.73
10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315.61
11	광양백운고등학교	314.55
12	순천매산고등학교	314.23
13	목포헤인여자고등학교	312.66
14	문태고등학교	312.44
15	부영여자고등학교	312.42
16	여수여자고등학교	310.34
17	순천여자고등학교	308.89
18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307.58
19	한빛고등학교	306.55
20	해남고등학교	306.44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 해질 19:15 | 달출 11:38 | 달짐 22:48

주말 막바지 피서 즐기세요

오후부터 비 그치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호리고비	22/27	보성	호리고비	22/26
목포	비온뒤	22/26	순천	호리고비	22/28
여수	호리고비	23/26	영광	비온뒤	22/27
나주	호리고비	22/27	진도	비온뒤	23/26
완도	비온뒤	23/27	전주	비온뒤	21/27
구례	호리고비	21/28	군산	비온뒤	22/28
강진	비온뒤	23/28	남원	비온뒤	21/27
해남	비온뒤	23/28	홍산도	비온뒤	21/24
장성	비온뒤	21/26			

◇바다 날씨

시해	방향	파고(m)	
		오전	오후
남부	북~북동	0.5~1.5	0.5~1.5
	북~북동	1.0~2.0	1.0~2.0
남해	북동~동	0.5~1.5	0.5~1.5
	북동~동	1.0~2.0	1.0~2.0
서부	북동~동	1.0~2.0	1.0~2.0
	북동~동	1.0~2.0	1.0~2.0

◇물때

목적	밀물	썰물
여수	05:49	11:02
	18:20	23:21
목포	00:16	06:16
	12:40	18:43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22/29	22/30	23/28	23/27	22/28	22/29	22/29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10
- 빨래: 20



나주 첫 배 수확 20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올해 첫 배를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육상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천만원 선착순(중·후 지정분양)을 합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에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입암출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 좋은 중상형 아파트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즉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중·후 지정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복합·임대사업자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이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원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062)513-4150 | 매곡지점 (062)572-4150 | 첨단지점 (062)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062)572-8167